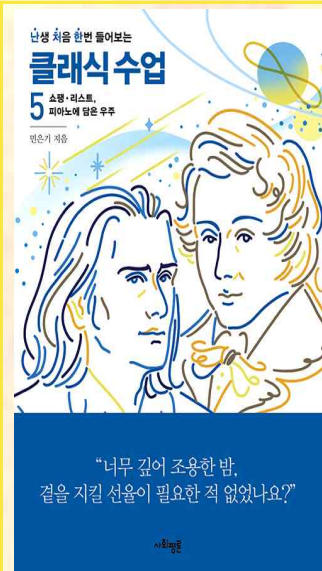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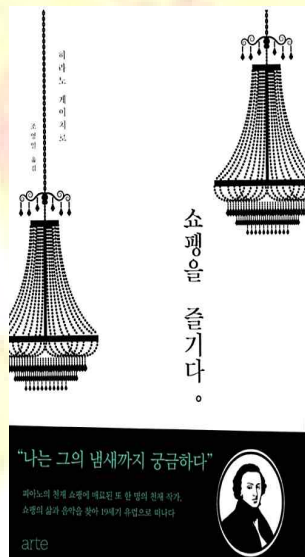
# '예술 더 함' 북큐레이션 (2021년 4월-6월)

## [쇼팽과 함께 봄을 '듣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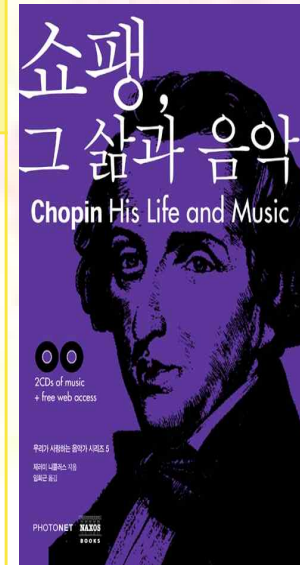
- 난생 처음 들어보는 클래식 수업 5
- 민은기 지음  
(670.15-민68ㄴ-v.5)

『난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클래식 수업』은 클래식 음악이 '난처'했던 사람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음악 입문서이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5권은 음악사에서 손꼽히는 두 명의 피아노 음악가 쇼팽과 리스트의 일생과 작품을 담아냈다.



- 쇼팽을 즐기다
- 하라노 게이치로 지음  
(670.4-히231ㄴ조)

작가가 직접 답사한 방대한 창작노트를 바탕으로 쇼팽의 삶과 주변 인물들, 흥미로운 에피소드의 엑기스를 담아낸 <쇼팽을 즐기다>는 쇼팽이라는 인물과 그의 음악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콤팩트한 안내서이자 입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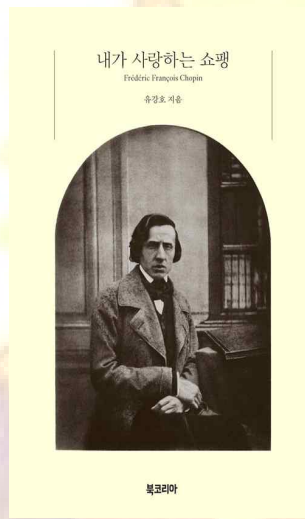
- 쇼팽, 그 삶과 음악
- 제러미 니콜러스 지음  
(670.99-니825ㄴ임)

탄생 200주년을 맞은 '피아노의 영혼', 쇼팽. 쇼팽의 주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CD 2장이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제공된다. 쇼팽의 생애사, 음악사, 시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꼼꼼한 비교연표와 상세한 음악용어 해설이 담겨 있다.



- 내 친구 쇼팽
- 프란츠 리스트 지음  
(670.99-리58ㄴ이-c.2)

거장이 만난 거장 시리즈 2권. '낭만시대 피아노 음악'을 만든 두 사람, 리스트와 쇼팽. 친구이자 경쟁자였던 리스트가 쇼팽의 사후 그의 위대함을 후대에 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남긴 역사상 첫 쇼팽 전기이다.



- 내가 사랑하는 쇼팽
- 유강호 지음  
(670.99-쇼842ㅇ)

음악 평론가 유강호 선생의 유작으로, 2011년 출판사에 원고만 전한 뒤 작고하여 폐기될 뻔한 원고 문치를 되살려 완성한 책이다. 쇼팽에 관한 번역서는 많아도 이처럼 쇼팽의 유럽 행적을 모두 답사하여 성과를 낸 도서는 없을 것이다.



- 쇼팽
- 음악지우사 지음  
(670.99-음61ㄴ-v.6)

음악지우사가 엮은 쇼팽의 전곡(全曲)에 대한 음악해설서. 심도있는 해설로 쇼팽의 피아노 기법과 작품해설을 통해 쇼팽에 대해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청주오창호수도서관**  
Established 2016

# '예술 더 함' 북큐레이션 (2021년 4월-6월)

## [쇼팽과 함께 봄을 '듣다' 2]

음악가 쇼팽, 미술과 영화에 빠지다

The Life & Music of Frédéric Chopin, and His Portrayal in Movies &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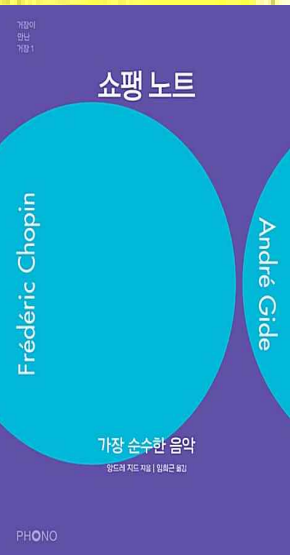
김 장 승 용



J 북스 &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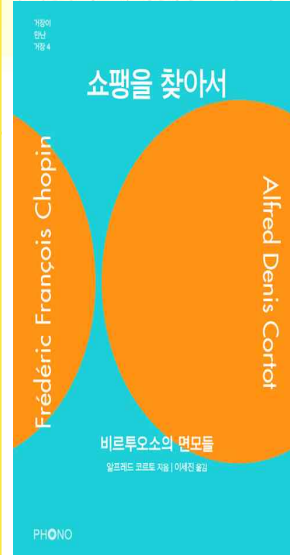
- 음악가 쇼팽, 미술과 영화에 빠지다
- 장승용 지음  
(670.99-장580)

쇼팽의 일생과 재미있는 일화, 쇼팽이 문화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 등을 소개한다. 쇼팽을 소재로 하여 만든 영화와 미술 작품들도 함께 소개하여 독자들이 음악 분야 외의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반영된 쇼팽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쇼팽노트
- 앙드레 지드 지음  
(670.99-지228인임)

20세기 초반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 앙드레 지드. 지드는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로서 평생 사랑했던 쇼팽 정신의 정수를 40여년의 망설임 끝에 글로 풀어낸다.



- 쇼팽을 찾아서
- 알프레드 코르토 지음  
(670.99-코238인이)

쇼팽의 제자를 스승 삼고, 쇼팽의 가능한 모든 유물을 수집하고, 쇼팽의 악보를 편집하고, 쇼팽이라는 종교의 사제로 가까이 나섰던 코르토. 클라라 하스킬, 디누 리파티, 상송 프랑수아를 길러 낸 프랑스 피아니즘의 거장이 들려주는 쇼팽 이야기다.

아마추어, 쇼팽에 도전하다

다시,  
피아노

앨런 러스브리저 지음  
이석호 옮김

PLAY IT  
AGAIN

PHONO

- 다시, 피아노
- 앨런 러스브리저 지음  
(676.204-러58인이)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의 전설적 편집국장이었던 앨런 러스브리저가 피아노 레퍼토리 가운데 가장 난곡으로 꼽히는 쇼팽의 장대한 걸작 「발라드 1번 G단조」를 완주해내는 과정을 유쾌하게 풀어낸 책이다.



- 쇼팽을 기다리는 사람
- 박시하 지음  
(814.7-박59인)

시인 박시하는 평소 쇼팽을 만나는 삶을 통해서 독자에게 쇼팽의 음악이 가진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쇼팽이라는 우주가 가진 빛나는 감정들, 쇼팽과 저자 사이에 오가는 비밀들을 독자에게만 은밀히 보여준다.



- 쇼팽 발라드 제4번
- 로베르토 코트로네오 지음  
(883-코838인최)

캄피엘로 문학상 수상작품. 화자는 쇼팽이 죽기 직전에 쓴 수수께끼의 악보를 받게 된다. 그것은 '발라드 제4번 바단조 작품번호 52번'의 또 다른 종결부로 쇼팽 사랑한 연인을 위해 만든 곡이었다. 그 악보속에서 화자는 쇼팽의 예술과 인간에 대한 숨겨진 감정을 완성한다.



청주오창호수도서관  
Established 2016